立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길림신문
吉林省委朝鮮文机关报
吉林朝鮮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5 년 4 월
15
화요일
음력 3 월 18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鮮文报 제 6022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길림성 축산업의 봄날, '축두육미'의 목가 우렁차다

4 월의 길림성은 온통 봄빛으로 흘러넘친다.

룡정시 목락연변황우시험소의 표준화 우사에 들어서니 "음매 ~ 음매" 하는 소들의 영각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전자귀걸이(耳标)를 착용한 황소 한마리가 한가롭게 꼬리를 흔들며 앞에 놓여있는 정확한 배합 비례 사료를 '시식'하고 있었다.

"이는 개체의 성장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자귀걸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소의 전반 생명주기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일전, 길림성과학기술조력농촌진흥전문가봉사단의 목축전문가가 룡정에 도착, 연변대학 동물과학학부 주임이며 교수인 고청산이 현장에서 전자귀걸이의 용도에 대한 과학보급을 진행했다.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우사 안의 소들은 털색이 밝고 튼튼하고 살이 쪘으며 쾌적하고 한가로워보였다. 목락연변황우시험소는 년간 100 마리 이상의 고급 고기소를 출하하는데 그중 A3 급 이상의 고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를 초과,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

우리 나라 5 대 우량종 소의 하나인 연변황우의 사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 년, 연변주는 2,000 만원의 전문자금과 105 만 3,000 원의 연변황우특색산업발전기금을 설립하여 규모화 사육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현재 전 주에는 197 개의 육우사육전문촌이 있는데 동기 대비 27.1% 늘어났다. 또한 1 개의 국가급 종자소(站), 2 개의 국가급 연변소 보종장(保种场)과 2 개의 국가급 고기소 핵심육종장을 보유하면서 현대고기소산업체계를 구축하였다. 2024 년 전 주적으로 고기소 68 만 5,000 마리를 사육하고 19 만 5,000 마리를 출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6% 와 7.5% 증가했다.

최근년간 길림성은 대농업관, 대식물(食物)관을 적극 실천하여 '축두육미'(畜头肉尾) 문장을 충분히 살리고 '짚대로 고기 바꾸기' 및 천만마리 고기소 건설 프로젝트를 깊이있게 실시, 고기소 도축량이 두배로 늘어나 전국 11 위에서 5 위로 뛰여올랐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가공기업의 현과 향에로의 배치를 이끌어 현대농업산업 발전의 '활력세포'를 불러일으켰다.

통화현 영액포진(英额布镇) 통화유점우목업유한회사의 감시 화면에 나타난 각종 수치는 책임자 왕림이 실시간으로 매 소의 생존 수치를 장악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모든 소들을 분류해 건강 상태, 사육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왕림의 말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외에도 지능우사에는 1 시간 동안 500 마리의 소여물을 버무릴 수 있는 배합실이 마련되여있습니다. 2 분 동안에 200 마리의 소에게 여물을 줄 살포기가 있고 24 시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항온 구유도 있습니다 …" 왕림은 우사에 배치된 '첨단과학기술'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왕림은 현재 소사육기지는 단 7 명만으로도 500 여마리의 소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더욱 정밀화된 관리를 실현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인력을 산업사슬의 다른 단계로 조률하고 긴밀히 협조해 기업을 크고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왕림이 말하는 산업사슬은 재배와 사육의 순환으로 구축된 특색농업 생태사슬이다.

통화현풍화농산물유한회사의 선식옥수수재배기지에 의탁하여 선식옥수수 재배와 가공, 곡식대 수매와 비축, 고기소 사육과 도축 그리고 배설물 유기적 환전(还田)을 일체화한 완전한 록색농업 및 축산 폐환 산업사슬을 구성하여 '록색생태, 순환재생'을 실현한다.

왕림은 기자에게 '생태 장부'를 계산해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옥수수 짚은 소에게 먹이고 소똥은 밭을 기름지게 하고 밭에는 옥수수를 다시 심어 진정으로 버리는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색은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우세는 더욱 '우수'하게 만들었다. 길림성이 '사슬'을 연장시키고 또 강력하게 한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백성시 룡소진 소호목축업부화장내에서 로동자들은 조심스럽게 새끼게사니에게 백신을 접종하여 생존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탈온(脱温)을 거친 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사육업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새끼게사니를 부화, 판매, 회수합니다. 현재 37 만마리의 새끼게사니를 부화시키고 또 45 만개의 알이 새로 부화를 시작했는데 년수입 500 만원을 올리고 진내 93 개 농가의 취업을 이끌며 농가 년소득을 10 만원 늘일 타산입니다." 총경리 류려민은 성취감에 넘쳐 말했다.

최근년간 룡소진의 게사니산업은 '부화 + 육추(育雏) + 사육'의 전반 사슬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게사니사육산업기지를 구축하여 사육업자들이 산업 발전의 모든 고리에 융합되게 했다.

마찬가지로 길림성 서부에 위치한 송원시 건안현은 농목(农牧) 교차지대에 속하여 초목업 및 곡식대 자원이 풍부하고 농민들은 원래 소와 양을 사육하는 전통이 있으며 풍부한 사육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년간 건안현의 고기양산업은 신속하게 발전하여 길림성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발전시키는 양사육 대현으로 되였다. 특히 자주적으로 육성한 고기양 신품종들인 '건화육용 메리노양'과 '쌍건 고기양'은 농업농촌부의 인증을 받아 건안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2 개의 자주적 지적재산권 고기양 품종을 가진 현으로 되였다.

현재 건안현의 현대 고기양 산업사슬은 점차 보완되여 '사초료 재배와 가공 - 고기양 번식 양식 - 생축(活畜) 거래 - 도축 가공 - 상업무역 류통'의 현대고기양산업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여 브랜드 효익이 나타났다. 2023 년, 대포소(大布苏) 양거래시장이 건설되여 운영되고 있고 일 거래액이 500 만원 이상으로 안정되여 고기양 거래에서의 건안의 부족점을 보완하였으며 동북, 화북 지역까지 복사할 수 있게 되였다.

길림대지는 과학기술이 능력을 부여하여 사슬이 연장되고 있으며 특색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다. 고기소, 고기게사니, 고기양 … 하나 또 하나의 산업사슬이 농촌 진흥의 맥박을 련결시켜 우리 성이 식량대성에서 농업강성으로 매진하는 새로운 발자취를 써내려가고 있다.

/ 길림일보

연변대학 변강연구원 · 흥변부민연구원 설립

12 일, 연변대학 변강연구원 · 흥변부민연구원 현판식 및 2025 변강치리와 흥변부민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였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중국사회과학원 학부 위원이며 중국력사연구원 부원장인 리국강이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연변대학당위 서기 두예가 축사를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당위 서기 류휘춘, 성당위교육사업위원회 부서기이며 성교육청 부청장인 류학군, 성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인 풍경충이 선후하여 축사를 했다.

9 시 25 분경, 열렬한 박수소리 속에서 호가복, 리국강, 풍경충, 두예가 연변대학 변강연구원 · 흥변부민연구원을 위해 현판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중요 사상,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변강치리를 강화할 데 관한 중요 론술을 깊이 관철하기 위해 연변대학은 인재자원을 적극 통합하고 조직구조를 구전히 하고 보완했으며 유명 전문가팀을 초빙, 높은 수준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변대학 변강연구원 · 흥변부민연구원을 설립했다.

이 연구원은 중화민족공동체 건설, 변강지역 교육과 인구 발전, 향촌 진흥과 특색산업 발전, 변경관광과 국경간 무역, 변강 안전과 치리 및 고구려, 발해국 등 변강 력사 등 면에서 학술연구를 펼쳐 일련의 독창성, 대표성이 있는 학술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연구원의 설립은 변강민족지역의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변강치리 현대화 수준 향상에 지력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 학자들은 변강치리, 흥변부민 등을 둘러싸고 교류, 토론했다.

연변대학 부교장 류암이 의식을 사회했다. 주급 지도자 석기화,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길림성사회과학원 사회학소 등 과학연구원 책임자, 길림대학, 광서대학, 료녕대학, 중앙민족대학, 할빈공정대학, 동북농업대학, 길림농업대학 등 대학교 관련 책임자 및 전문가와 학자들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 연변일보

연길시, 5.1 절 맞아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 손님 요청

일전 연길시민족종교국은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전국의 벗들이 다가오는 5.1 절 기간 연길에 와서 관광할 것을 바라는 요청편지를 띄웠다.

요청편지에서 연길민족종교부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인 연길시는 한족, 만족, 몽골족, 회족, 조선족 등 32 개 민족이 손잡고 함께 전진하며 일심으로 단결된 따뜻한 삶의 터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현재 연길시의 민속, 생태, 빙설, 공룡, 국경 등 5 대 관광 열점과 '관광으로 류동을 추진하고 류동으로 료해를 증진하며 여러 민족 전방위적인 상호 융합과 상감을 추진'하는 핵심 리념으로 문화부능과 문화관광의 융합을 큰 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편지에서는 연길시에서의 관광은 일종의 레저휴식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중화문화를 느껴보고 문화자신감을 증강하는 깊이있는 체험이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썼다.

편지에 따르면 이번에 연길시에서는 진심과 성의를 담아 전국 각지의 손님들을 환영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박물관을 참관하며 민속원을 유람하고 춤노래를 감상하며 커피를 맛보고 가족사진을 찍으며 민속풍토 인정에 융합되고 연변의 례의를 향수하는 등 7 대 주제활동으로 이색적인 성연을 펼쳐보이면서 손님들이 특별한 민속풍정의 5.1 절을 보내게 할 타산이다.

한편, 이번 신청은 연길시민족종교국의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신청 등록 시간은 4 월 21 일까지이다.

/ 종합

4 월 봄눈 눈이냐 꽃이냐

4 월 13 일, 장춘시에는 아름답게 망울 터친 봄꽃마다 순백의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려앉았다. 아름다운 봄눈과 봄꽃이 공존하는 이 모습은 시적이면서도 랑만적인 예술 색채로 승화하면서 독특한 풍경선을 그려냈다.

/ 류향휘기자

백년부락 김경남 향촌문화관광인솔자 지원 프로젝트 명단에

최근 문화및관광부는 2024 년도 향촌문화관광인솔자 지원 프로젝트에 입선된 인원과 지원 인원 명단을 발표했다. 연변주 도문시백년부락민속문화관광유한회사 경리 김경남이 2024 년도 향촌문화관광인솔자 지원 프로젝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에 나갔다가 2005 년에 귀국한 김경남은 그동안 모은 돈을 나라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줄곧 고민했다. 백년고택을 발견한 후 그는 고택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동북 3 성의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고 문물을 백방으로 모으면서 백년고택의 가치를 살리기에 힘썼다. 현재 그가 소장한 민속문물은 1,000 여점에 달한다.

이렇게 김경남은 중국 국내 유일의 완전한 조선족 풍격을 보존한 백년고택을 기반으로 백년부락관광지를 창설했고 관련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도문시백년부락민속문화관광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이곳은 관광휴양, 농촌체험, 민속문화, 시골민박, 특색음식, 축제활동 등이 결합된 조선족 민속특색 문화관광기업으로 발전했다.

김경남은 줄곧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전통문화 보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을 이끌고 막걸리를 생산하고 주민들을 초빙해 민속가무공연을 펼치며 조선족 전통복식 려행사진촬영 사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전통 명절에는 연회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문화 뿌리의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힘썼다.

김경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더 있는데 모든 백룡촌 주민들이 마을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락에서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전통혼례, 환갑잔치와 물동이춤, 부채춤, 장고춤, 농악무 등 전통민속가무공연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두만강표류, 관광기념품상점, 해설원, 도문—백룡촌 단거리 려객수송 등에 관한 취업자리를 늘이면 적어도 300~500 명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도 따라서 함께 치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백년부락의 내포와 독특한 력사를 찾기 위해 김경남은 백룡촌에 살았던 근 100 명 사람들을 방문하여 백룡촌의 오늘날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발굴했다.

김경남은 화가를 초대하여 22 메터 길이, 1.7 메터 높이의 화랑에 100 여개의 생생한 장면으로 백룡촌 153 년 력사를 보여주었다. 김경남은 "관광객들이 백룡촌에서 생동감 넘치는 력사이야기를 통해 조선족 문화를 알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2024 년도 향촌문화관광인솔자 지원 프로젝트 입선자 및 지원자 명단은 〈문화및관광부 판공청의 2024 년도 향촌문화관광인솔자 지원 프로젝트 추천사업 시행 통지〉에 근거하고 각 지역 문화및관광행정부문의 추천을 기반으로 자격 재심사, 심사,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였다. 총 468 명이 2024 년도 향촌문화관광인재 지원 프로젝트 입선자로 확정되였으며 이중 92 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였다.

/ 종합